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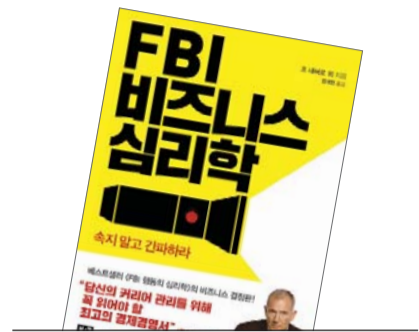
## FBI의 패러다임으로 영업을 간파한다

영업 미팅 도중 상대방이 계속 목 근처를 쓰다듬는가. 그렇다면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상대가 눈 주위 근육의 변화 없이 입꼬리만 당겨 미소 짓는가. 그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다. 나머지 93%는 몸짓, 표정, 말투, 자세, 태도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한다. 대화를 나누던 직장 동료가 시종일관 팔짱을 끼고 있는 것, 제품을 소개하는 매장 직원이 내 질문을 따라 말하는 것. 이 모두가 나름의 정보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를 재빠르게 포착해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일상과 비즈니스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존 내버로는 '편안/불안 패러다임'으로 상대를 간파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분석할 때 '저 사람은 지금 편안한가, 불안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혼이 나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 몸을 뒤로 빼거나 손발을 움츠리며



FBI 비즈니스 심리학

조 내버로의 저음/정세현 옮김/부키

거리를 두려 한다. 입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입술을 자주 핥거나 눈을 격하게 깜빡거리다. 그는 온몸과 표정으로 불안 반응을 표출한다.

저자는 이 방법을 회의, 상담, 협상, 프레젠테이션, 면접 등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 활용할 것을 권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를 믿어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임을 상대에게 '보여 준다'. 책은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결정적 한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다. 360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소녀와 여자들의 삶

앨리스 먼로 저음/정연희 옮김/문학동네



저자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책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모든 측면을 그린 앨리스 먼로의 자전적 소설이다. 소설 속 주인공은 집요한 호기심과 남다른 감수성으로 '망명자 혹은 스파이처럼'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변인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한다. 강에서 개구리를 잡으며 놀던 어린 여자아이가 자의식이 생기고, 스스로를 소설가로 인식하기까지의 내밀한 감정을 먼로 특유의 통찰력으로 세밀하게 그려냈다. 472쪽. 1만5800원. /김현정 기자

### 다른 소년

이신조 저음/문학동네



이신조의 네 번째 소설집. 저자는 불운한 현실에 에너지가 소진 돼버린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이 지나온 삶의 인과과정을 들여다본다. 주인공인 열여덟 살 소년은 버스에서 우연히 주문 스물한 살 대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낯선 도시를 헤맨다. 저자는 소설의 인물들을 살인, 지진, 방사능 유출 등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만든다. 어떠한 삶도 '다른' 방향으로 또다시 나아가볼 수 있다는 희망을 시적인 문장들로 담아냈다. 312쪽. 1만3500원. /김현정 기자

### 조선 리더십 경영

윤형돈 저음/와이즈베리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사회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다. 책에서 다루는 인물은 조선 시대라는 시기에 한정됐지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인간 군상과 놀랍게도 많이 닮아 있다. 세종 같은 사람, 원균 같은 가짜 리더 등은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반면교사나 롤모델이 되어준다. 264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 코스모스

코스모스 하늘하늘 춤추는 그 눈시리 창공 저 꽃밭에 누워 나도 꽃이고 싶은 날.

/고흥곤 작

# 겨울 패션의 완성은 '방한부츠'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서 주목  
보온성·디자인 갖춰 '일석이조'  
접지력·방수기능도 더 우수해져

겨울 패션에서 '부츠'는 빼놓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보온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방한 부츠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들이 방한 부츠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기능과 소재,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신슬레이트나 거위털 등 충전재와 소재에도 브랜드별, 제품별로 차이가 있다. 또 접지력이나 방수 등 기능도 더욱 우수해졌다.



아이더의 방한 부츠 '메스' 화보컷. /아이더

아이더는 직장인들을 위한 캐주얼 방한 부츠 4종을 선보였다. '로렌2부츠'는 지난해 베스트셀러였던 로렌 부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볍고 보온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슬레이트 충전재와 퍼(Fur) 소재를 사용해 방한 기능을 높였고, 쿠셔닝이 우수한 창을 적용해 오래 걸어도 편안하다. 밑창에는 접지력이 우수한 하이드로스토퍼(HYDR O-STOPPER)소재를 사용해 눈길 및 빙판길에서도 보행 안전성을 높였다.

아이더의 '메스 부츠'와 '제나 부츠' 시리즈는 보온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았다. 우선, 메스 부츠는 캐주얼한 스타일의 남녀공용 로우컷 방한 부츠다. 신발 전체에 재봉 스티칭 느낌의 디테일을 적용했고,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또, 미끄럼을 최소화해주는 엑스그립 컴파운드 소재를 사용해 빙판길이나 눈길에서도 안전한

게 다닐 수 있으며, 측면에 방수 지퍼를 사용해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다.

제나 부츠 시리즈는 세련된 스타일에 방한성을 겸비한 여성용 미드컷 부츠다. 신슬레이트 충전재와 쿠셔닝이 좋은 창을 적용해 방한과 편안함을 두루 잡았다. 종아리 부분에는 퍼 장식이 더해졌다.



K2의 겨울 패딩부츠 4종컷. /K2

K2에서는 이색 방한 부츠를 출시했다.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와 협업으로 커피 가루를 적용한 방한 부츠 4종을 출시한 것. 재활용 커피 가루가 함유된 인솔을 적용해 항균 및 소취 기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 4종의 명칭은 '라떼(LATTE)', '마끼아토(MACCHIATO)', '더치(DUTCH)', '크레마(CREMA)'다. 미끄럼 방지 기능을 위해 하이드로스토퍼를 바닥창에 적용했다.

K2는 기존 부츠 대비 스토퍼 면적을 확대하고, 눈길 및 젖은 노면에 특화된 타이어 패턴을 적용해 방한 부츠 4종의 안정성과 접지력을 강화했다. 또 방수 및 투습 기능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쿠셔닝이 좋은 미드솔을 적용했다. 측면에는 지퍼를 설계해 신고 벗기 용이하다.

스타일도 다양하다. 기본 디자인의 라떼는 블랙, 다크 그레이, 다크 브라운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퍼가 부착된 마끼아토는 블랙, 그레이 2가지 색상이며, 앵글 부츠 길이의 더치는 블랙, 네이비 2가지 색상이다. 크레마는 캐주얼하게 신기 좋은 패딩 슬립온 스타일로, 블랙과 네이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노스페이스도 올 겨울 흑한에 대비해 '부띠'와 '몰' 신제품을 출시했다. 노스페이스는 최고급 구스다운 충전재를 신발에 적용해 보온성을 높였다. 패딩 재



노스페이스의 '부띠 컬렉션' 제품컷. /노스페이스

킷을 연상시키는 입체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노스페이스의 '여성 부띠 클래식 (W BOOTIE CLASSIC)'은 기본 미드컷 스타일로 아웃도어 및 일상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다. 최고급 구스다운 충전재와 하이드로스토퍼 밑창이 적용됐다. 색상은 브라운, 블랙, 스틸 그레이 3가지다.

'여성 부띠 집 하이(W BOOTIE ZIP HIGH)'는 무릎 아래까지 감싸주는 긴 기장으로 보온성을 극대화했다. 또 안쪽에 지퍼가 달려있어 신고 벗기 좋다. 편의성을 높인 '여성 부띠 클래식 쇼츠(W BOOTIE CLASSIC SHORT)'는 네이비,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했다.

프로스펙스는 여성용 '히트워킹 하이'를 출시했다. 아웃도어 및 일상에서 착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신발로, 로우, 미드, 하이 등 3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돼 취향에 따른 구매가 가능하다.

이번 신제품은 보온성이 뛰어난 양모 원단을 사용해 추운 날씨에도 발과 발목을 따뜻하게 보호해준다. 발가락과 발등을 둥글게 감싸는 디자인을 적용해 귀엽고 활동적인 느낌을 더했다. 또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목 부분에 조르개를 더했고, 발수 처리 가공으로 생활 방수 기능을 갖췄다.

관대용 아이더 신발용품기획팀장은 "올 겨울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한 부츠 역시 통패딩처럼 보온력은 물론 데일리룩, 오피스룩과 매칭할 수 있는 스타일리한 아이템이 인기"라며 "아이더는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과 자연스럽게 매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일의 방한 부츠를 선보인만큼 올 겨울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나면 '홈파티' 준비 끝!

신세계푸드, 케이크 20여종 출시  
컬러 생크림·장식으로 가성비 ↑

신세계푸드가 홈파티족을 위해 가성비를 높이고 화려함도 더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20여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경기 불황과 외식 물가 인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홈파티족이 파티 분위기를 연출을 위해 화려한 디자인의 실속형 케이크를 선호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신세계푸드는 케이크 최대 성수기인 연말을 맞아 컬러 생크림, 캐릭터, 트렌디한 장식 등으로 화려함을 더하고 가성비는 높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였다.

신세계백화점 내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더 메나주리(The



더 메나주리 케이크 /신세계푸드

e Menagerie)'의 신제품으로는 다채로운 컬러의 생크림을 활용해 빼에로의 얼굴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 '크리스마스 빼에로맨', 부드러운 티라미수에 미니 브라우니와 서커스 장식을 더한 '서커스티라미수',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컬러 생크림과 장식으로 귀엽게 꾸민 컵 케이크 등 10여종을 내놨다.

이마트 내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

랜드 '데이앤데이(Day And Day)', '밀크앤하니(Milk And Honey)'의 신제품으로는 1~2만원대 가격으로 실속을 더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5종을 출시했다. 대표 제품은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의 캐릭터 일렉트로맨을 활용해 재미 요소를 더하고 미니 톨케이크를 올려 볼륨감을 높인 2단 생크림 케이크 '일렉트로맨과 파티', 눈사람 모양의 미니 사이즈 생크림 케이크에 딸기 토핑을 올린 '아기 스노우맨' 등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홈파티 문화가 확산되면서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을 집에서 치르는 고객들을 위해 화려함과 가성비를 높인 케이크를 선보이게 됐다"며 "파티 분위기를 한층 높여 줄 더 메나주리, 데이앤데이, 밀크앤하니 케이크로 즐거운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